



개인 병원이 갤러리로 변신했다. 13일 박동균 성형외과를 찾은 환자들이 김민지 개인전을 관람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웨딩홀·병원, 그곳에도 문화가 흐른다

문화신포니에타, 사론웨딩문화원에서 '모닝 콘서트'

박동균 성형외과 갤러리 마련... 다양한 전시 개최

격식을 갖춘 공연장이나 전시관을 벗어나 다양한 공간들에 문화가 흐른다. 웨딩홀이 클래식 음악 공연장으로 변신하고 대형 병원이 아닌, 개인 병원에도 그림이 내걸렸다.

올해로 창단 7년을 맞은 민간 오케스트라 문화신포니에타(단장 정병열)가 최근 전용 연주홀을 마련했다. 완벽한 음향과 무대 장치 등을 갖춘 공간은 아니지만 이곳 저곳 옮겨다니지 않고 다양한 클래식 연주회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용홀은 반가운 소식이다.

공간을 내준 곳은 광주시 북구 오치동 광주북부경찰서 인근에 위치한 사론웨딩문화원이다. 문화원 측은 최근 전체 리모델링을 하면서 음향 시설 등을 보강해 문화신포니에타에게 내놓았다. 많은 이들에게 어렵다고 느껴지는 클래식을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다는 노형순 대표의 바람이 담긴 결과다.

첫번째 연주회는 오는 23일 오후 7시 30분에 열리는 '지역민을 위한 클래식의 향연-축배의 노래'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에서는 문화신포니에타 앙상블과 소프라노 노연선, 테너 김백호씨 등이 출연한다.

문화신포니에타가 아쉽게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8월 20일부터 시작되는 '모닝콘서트'다. 보통 오전 11시에 진행되는 모닝콘서트는 서울 예술의 전당을 비롯해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히트상품'. 예술의 전당 모닝콘서트의 경우 10만여명이 넘게 다녀갔으며 최근에는 태교를 위한 임신부 모임, 동창 모임, 제모임 장소로 각광받으면서 인기를 모으고 있다.

문화신포니에타의 경우 지난 2004년 6월 '해설이 있는, 어머니를 위한 모닝콘서트'라는 제목으로 모닝콘서트를 열어왔지만 일곡도서관, 향토음식박물관 등 여러 곳으로 옮겨다니면서 진행, 지속성이 없어 아쉬웠다. 특히 이번 모닝콘서트는 브란치 콘서트로 진행한다. 콘서트가 시작되기 1시간 전인 오전 10시부터 커피와 각종 차, 케익, 등 간단한 먹을거리를 즐기며 담소를 나눈 후 공연을 관람하는 형식이다.

공연을 진행할 바이올린의 김규아, 비올라의 신정문, 첼로의 이승희씨 등 모두 광주시립교향악단에서 상임단원으로 활동하는 이들이라는 점에서 음악회의 수준도 높다.

문화신포니에타는 당분간 한달에 한 차례씩 모닝콘서트를 진행하며 정착이 되면 매주 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재야음악회와 음악 꿈나무들이 함께하는 음악회 등 다양한 기획공연도 준비하고 있다.

그밖에 조율 과정을 거쳐 다른 연주단체들에도 공간을 대여해 줄 계획이다.

광주시 서구 농성동에 위치한 박동균 성형외과에서는 현재 전담대 출신 '에픽회' 회원 등으로 활동중인 한국화가 김민지씨의 개인전(8월 31일까지)이 열리고 있다.

전남대 병원, 조선대 치과 병원 등 최근 대형 병원에 갤러리가 설치된 경우가 많지만 개인 의원에서 정식 전시회가 열리는 것은 드문 경우다.

지난해 개인 당일부터 갤러리를 열두에 두고 조명을 설치하는 등 병원 인테리어를 진행한 병원 측은 개인 후 자체 소장품으로 전시회를 진행한다 이번엔 화려한 꽃을 주 소재로 삼고 있는 김씨의 작품 20여점을 전시 중이다.

병원측은 다음에는 조각이나 설치 미술 작품을 전시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작은 음악회 등도 구상 중이다.

김세경 실장은 "거창한 사회 공헌 활동은 아니더라도 지역민들에게 문화 콘텐츠를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었다"며 "환자들의 반응도 좋아 앞으로도 다양한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일보 신춘문에 출신 소설가 정강철씨

두번째 장편 '블라인드 스쿨' 펴내

광주일보 신춘문에 출신 소설가 정강철(48·사진)씨가 장편소설 '블라인드 스쿨'(휴먼앤북스 펴냄)을 출간했다. 이번 소설은 작가의 두번째 장편소설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작지원공모 장편소설부문 당선작이다.

광덕고 국어교사인 작가는 우리 교육의 현주소를 생생하고 솔직하게 그려냈다. 소설은 비교적 평범했던 학생 '신화'가 학교를 무단결근을

하면서 시작되는 이야기다. 억압적이고 폐쇄적인 교육현실에 짓눌리고 간혀 충동적인 반항과 일탈을 벌이는 학생의 모습, 교직에 회의를 느끼거나 변화하는 교육 현실 앞에 무기력하게 함몰되는 교사의 모습, 아이의 미래를 볼모로 잡혀 죄인이 되고 마는 학부모의 모습을 개연성 있게 제시해, 우리 교육 현실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정씨는 "백가쟁명의 진단과 주장이 난무하는 교육현장을 소설로 증언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며 "앞으로는 고통의 시간이 아닌 보다 즐거운 글쓰기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영광 출생인 정씨는 1989년 광주일보 신춘문에 '양행'이, 1993년 '문학사상' 신인상에 '거인의 반쪽 귀'가 각각 당선되어 등단했으며 장편소설 '신·열하일기'를 발표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인문학 대중화 이끄는 '수유+너머' 무각사에 '인문학 서당' 연다

내달 8일~14일 어린이·청소년 대상 강좌

인문학의 대중화를 이끌어온 '연구공간 수유 + 너머'가 광주를 찾아 인문학 서당을 여는 등 인문학 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시도를 하고 있어 주목된다.

내달 진행되는 '수유 + 너머와 함께하는 인문학 서당' 이 프로그램은 도심 속 사찰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무각사 문화관이 인문학 활성화와 관심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다.

이를 위한 첫 작업으로 23일 문화관에서 고전 평론가 고미숙(연구공간 수유+너머 연구원·사진)씨를 초청해 'Lotus, 작가를 만나다'를 준비했다. 고씨는 이날 공부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책 '공부의 달인 호모쿠파스'와 '연구공간 수유 + 너머'에 대한 인문학적 보고서이자 비전 탐구서

인 '아무도 기획하지 않은 자유'를 중심으로 인문학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광주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인문학 강좌인 인문학 서당은 내달 8일부터 14일까지 무각사 문화관에서 열린다.

고병권씨를 비롯해 '수유 + 너머' 연구원이 광주 무각사에 기거하며 운영할 이번 서당은 '뎀으로 하는 공부-요가', '고전강독-논어 공자와 배움', '읽고쓰기-독서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눈 높이에 맞춘 맞춤식 수업과 박지원의 '열하일기' 등 옛 시와 글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발표해보는 독서토론 형식으로 펼쳐진다.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 중학 푸스와 '연구공간 수유 + 너머'에 대한 인문학적 보고서이자 비전 탐구서



또한 이 기간 동안 '어린이·청소년 대상 인문학 서당 운영 워크숍'도 진행한다.

인문학 서당 스태프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인 워크숍에서는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서당을 어떻게 꾸릴 것인가', '어떤 비전으로 우리는 만나는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한편, 무각사 문화관은 오는 29일 오후 7시 30분 무각사 마당에서 티벳 명상음악가 나왕게츨을 초청해 '한여름밤, Lotus 명상음악회'를 열 예정이다. 문의 062-383-0070.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호랑이에 새긴 세상의 희망

'호랑이 화가' 오동섭전

15~28일 대동갤러리

선조들은 밝은 새해를 맞기를 기원하며, 호랑이 그림을 대문에 내다 붙이고, 조정에서도 축범(축으로 만든 범)을 만들어 신하에게 나누어주기도 했다. 또 무인의 관복에 호랑이 흉배(胸背)를 달아주고 글을 하는 선비들도 필통이나 도자기에 호랑이를 새겨 넣었다.

40여 년째 호랑이만을 그리는 '호랑이 화가' 오동섭(60)씨가 오는 15~28일 광주대동갤러리에서 호랑이의 기세가 담긴 그림으로 세상에 희망을 전달하는 개인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 그는 백두산 호랑이의 웅장스런 모습을 담은 100호~400호 가량의 대형 작품

과 다양한 모습의 호랑이를 그린 소품을 함께 선보인다. 한지 위에 수묵으로 밑그림 그리고, 다시 한지를 덧대는 과정을 여러 차례 반복하고 유채물감으로 그린 호랑이는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듯 생생하게 살아 숨 쉰다. 또 우렁차게 포효하는 얼굴과 날카로운 앞니도 정교하게 표현해 호랑이 그림에서 느낄 수 있는 위엄과 생명력이 넘쳐난다.

오씨는 광주비엔날레 특별후원전, 송목회전 등의 단체전에 참여했으며 이을곡, 문소공, 총장공의 영정을 그리기도 했다. 또 지난 2002년에는 월드컵 성공을 기원하며 가로 20m, 세로 1.8m의 대형 군호도(郡虎圖)를 그렸다. 문의 062-222-0072.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시집 '도독산길' 등 25종

우수문학도서 선정

한국도서평협회 문학나눔사업추진반은 이상부 시인의 시집 '도독산길'을 비롯해 도서 25종을 2010년 2·4분기 우수문학도서로 선정했다.

선정 도서는 이대희의 시집 '귀가 서럽다' 등 시집 8종과 한강의 '바람이 분다, 가라', 이화경의 장편역사소설 '꾼-이야기 하나로 세상을 희롱한 조선의 책 읽어주는 남자' 등 소설 부문 7종, 김기정의 '금두검의 첫수업' 등 아동·청소년문학 부문 7종, 이동진의 '길에서 어찌꽃이 꿈을 꾸다' 등 평론·수필·희곡 부문 3종이다.

문학나눔사업추진반은 선정된 도서들을 2000부(평론은 1000부)씩 구입해 전국 2400여 곳의 복지시설, 도서관, 지역아동센터 등에 보낼 예정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휴가철에 읽어 보세요

국립중앙도서관 80선 선정

국립중앙도서관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일반인들을 위한 '휴가철에 읽기 좋은 책 80선'을 12일 선정, 발표했다.

목록은 주제별로 문학,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으로 나뉘어 저자와 제목, 출판사 등을 명기해 작성했다.

목록만 가지고 선택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도서관 홈페이지에 공개한 서평을 참조하면 된다. '사서들의 추천 글'과 '책 속 문장' 함께 읽으면 좋은 책' 등 유용한 정보가 많다.

목록과 서평은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www.n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우전해수욕장 애발 문행

슬로시리 증도

연도리도민시장 남해관광 055-226-3944

시내 11번-2233

시들버스 매일운행 (비선형 관광버스)

●당일차량: 15,000원 / 주말·휴일: 18,000원 (수월·항공)

종도 1일 체험관광	종도	요금
시들버스-경도리도 해수욕장	1인	20,000원
시들버스-수운관광호텔전차	1인	30,000원
시들버스-수운관광호텔전차-해수욕장	1인	25,000원

●문의: 055-226-3944